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Standard Life, 퇴직연금시장 중심의 성장전략 고수

- 최근 Prudential의 아시아 위주 글로벌 보험시장 치중 발표와 Aviva의 유럽 보험시장 치중 발표 이후 Standard Life는 영국 보험시장 및 퇴직연금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.
 - Standard Life는 2008년 현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랭킹 6위의 보험그룹이며, 퇴직연금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Prudential에 이어 랭킹 2위에 해당함.
 - Prudential이 글로벌 경영에 치중하면서 경영의 우선순위를 영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경우 Standard Life는 영국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.

- 영국은 2012년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체계에 따라 개인퇴직연금계좌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, 그 영향으로 Standard Life와 같이 퇴직연금시장에 중심을 둔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영국의 퇴직연금개혁에 따라 모든 피고용자들은 2012년부터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를 갖게 됨.
 - 개인퇴직연금계좌는 그간 고비용-저수익의 문제점을 드러낸 퇴직연금체제의 해결책으로서 대두됨.
 - 복수의 운용주체에 의해 대규모로 운용될 예정인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소규모직장의 피고용자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고비용-저수익의 문제점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됨.
 - 영국 당국은 개인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대략 6백만~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, 시장의 규모는 연간 8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.
 - 또한 80억 파운드 개인퇴직연금계좌 시장 중 60%는 신규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함.
 - Standard Life는 개인퇴직연금계좌의 활성화 추세 속에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.
 - 운용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.

(Telegraph 3/11, Standard Life 3/10)